

월요광장

학자 의병장 송사 기우만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할쫄기 한번 해 본 적 없고, 칼자루 한번 휘둘러 본 적 없는 문유(文儒)가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항하려고 의병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라가 망해 가는 불의의 시대를 맞아 애국 충정과 의분이 솟구쳐 오르는 기개가 없으려는 의병대장의 직분을 수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선이 망해 가던 한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오던 무렵, 큰 갯에 도포를 입은 나약한 선비들이 맨주먹으로 의병을 모아 의병대장으로 행동하던 일은 민족혼을 발양하던 위대한 구국 활동이었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守萬, 1846-1916)은 전라도 장성 출신으로 학자 의병장이었다. 조선을 대표하던 성리학자요 척사위정 사상의 거목이던 노사(蘆少)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다. 할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자의 지위에 오르고, 낮은 벼슬이기는 하지만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며, 만민의 추앙을 받던 당대의 석학이었다. 송사는 전통 유학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는 반대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머리를 깎는 육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머리 깎고 사느니

머리 깎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당시의 무도한 정책이 분명하게 반기를 들었다.

기우만은 나라를 붙들기 위해, 선비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면서 고뇌에 잠겨 있었다. 1896년 2월 충청도 제천 의진의 장의대장 유인석의 격문이 이르자, 송사는 때가 왔다고 믿고 3월에 광주향교로 들어가 의사들을 모아 전략을 세우니 의병들이 모여들어 형세가 대단했다. 더구나 장성에서 기삼연(奇參衍)이 300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합세하자 송사는 명실공히 호남 창의의 총수가 되었다.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모든 의진은 광주로 모이게 하고 광산관(光山館)을 본영으로 삼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던 때에 고종 황제의 의병 해산 명령이 내려오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투쟁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해 5월에 다시 장성에서 기병하였으나, 10월 16일 일본군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다음 해 4월야 석방되었다. 그 후 1908년에도 순천의 조계산 암자에서 동지 및 문인들과 함께 다시 거사를 꾀했으나 고종 퇴위의 비보에 의병을 파하고 은둔의 생활로 들어가고 말았다. 몇 차례 자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산속에 들어가 울막을 짓고 망국의 죽지 못한 신하라는 비운을 안고 살다가 생을 마치고 말았다.

송사는 조선 6대 성리학자의 한 사람인 할아버지 노사를 이은 대표적 호남 유학자였다. 노사가 타계한 이후 노선생(老先生)을 이은 소선생(少先生)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수많은 문학생들이 모여들어 대단한 학파를 이루며 유학 발전의 큰 기동 역할을 했다. 더구나 노

사의 학문을 이어 척사위정 사상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여 왜양(倭養)은 절대 거부하고 조선의 정통유학을 계승했다. 이 때문에 노사와 송사의 문하에서는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위정척사 사상이야 수구 보수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그런 민족적 위기와 난세에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 문화의 보존은 또 하나의 민족혼을 지켜낸 역사적 업적이었다. 그런 민족혼이 살아나 3·1 혁명 등의 조국 해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고,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을 막아내고 우리 배달민족의 찬란한 전통을 지킬 수 있었다.

1980년 국가는 송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장을 추서하여 그의 애국심과 의병운동에 대한 공을 잊지 않았다. 장성의 진원면에 가본 고산서원(高山書院)이라는 노사 기정진의 사당이 있다. 그의 학문과 위정척사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이다. 그 사당에는 노사의 제자 8명의 신위(神位)도 함께 모셔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친손자이자 의병대장이었던 송사의 위패는 더욱 빛나 보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오늘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찬란한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사의 학문과 위정척사 정신, 송사의 의병정신과 척사위정 정신이 내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산서원은 춘추로 제향을 모시고 있다. 그런 때라도 한번 그곳을 방문해, 노사와 송사의 혼령이 타사라도 울리던 때처럼 어떨는지? 역사를 잊은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계승해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 고

코로나19 이후 남겨지게 될 것들



오 권 중
광주환경공단 미래혁신팀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일종의 매너로 자리 잡았다. 집을 나서기 전 어떤지 허전한 기분이 든다면 먼저 마스크를 확인해 보아야 할 정도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생활 방식은 이뿐만 아니다. 먼저 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손 씻기가 강조되고, 어디를 가든지 입구마다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카페를 들어가 보자. 매장에 들어 서면 방문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찍는 광경이 낯설지 않다. 게다가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이 용인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가 되다 보니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받는다. 주요 약속 장소였던 식당 영업이 통제되고, 가정 내에서의 식사와 배달 음식 수요가 크게 늘었다. 외부 매장보다는 인터넷 쇼핑 등 구매 방법의 변화로 택배 이용도 크게 늘어 택배 기사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배달 음식 용기와 택배 상자, 포장지 등은 계속 쌓여간다. 쓰레기가 온 집안

을 가득 채우기 전에 자주 분리 수거를 하지만 갈 때마다 분리 수거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분리 배출 습관이 자리 잡았음에도 좀처럼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국제 유품의 하락으로 원료 단계의 재활용에 대한 비용적 메리트가 떨어져 재활용 수집 업체는 비교적 잘 분리된 재활용품마저 수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예외를 용인해야 할 것인가. 환경 문제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최소한 당장은 우리를 옥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위생과 보건으로 포장된, 편의를 위해 사용했던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들의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들을 모두 폐기 처리하는 방법에 기대어 숙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폐기물 처리 능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도 각 지자체는 매립장의 확보, 소각장 가동, 고체 연료화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처리량이 쓰레기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바로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이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염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용품 또는 재활용품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씻어서 다시 쓰는 습관, 세척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 물론만 씻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씻겨 내려간다. 코로나19를 포함해 바이러스는 비누에 노출되

면 표면의 지질막 구조가 파괴되어 감염성을 잃어버린 다. 심지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고체 비누라도 거품을 내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면 감염의 우려는 없다.

포장에 쓰이는 원료를 줄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제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해체 시 부피를 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고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포장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과대 포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 불필요한 포장 용기를 반송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습관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을 통해 포장재 생산자에게 출고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고려 사항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이전에 비해 다소 수그러들었다. 성급한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이 팬데믹 상황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빚장이 풀려 버린 일회용품 사용량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잔뜩 쌓여 버린 쓰레기들과 느껴져 버린 경각심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환경부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위급한 필요에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말았다. 과연 환경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얼마 동안이나 용인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쏟아낸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는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최소한 예전 수준 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 고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 치료가 중요하다



조 귀 임
전 초등교사

노후에 가장 두려운 병으로 알츠하이머, 즉 노인성 치매가 꼽힌다.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10-15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치매 전조 증상을 발견해 예방 조치를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발견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치매 전조 증상의 하나로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걷는 자세가 변하는 것에 주목한다. 느리게 걷는 습관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걸음은 치매와 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빨리 걷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광주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년 무료 60세 이상 주민에게 기억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치매 어르신 100명 중 5-10명은 완치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체계적 치료 및 관리로 병의 악화를 막고 치료 효과 또한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마 같은 유일한 혈육인 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언니는 3년 전에 작은딸이 운전한 차에 동승해 가던 중 20대 초반 운전자가 느닷없이 차를 틀어박는 바람에 다쳐서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한때 오래 전부터 진행됐는지 뇌혈관이 막히고 척추 신경도 많이 눌러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내게 자주 걸던 전화도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건 전화만 받으셨다.

올해 봄부터는 치매 증세가 눈에 띄게 발현되면서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두우면 불안하고 무서운지 한밤중에 온 집안을 불을 다 켜놓고 가족들을 깨우고 다니며 잠을 못 자게 하니 불안한 나날 속에서 긴장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평소에도 정갈하고 깔끔하신 분이셨는데 목욕을 시켜주는 작은 딸을 때리고 욕설까지 하면서 막무가내로 안 하려고 하신단다. 여름인데도 웃을 세 겹 네 겹 포개어 입으시며 춥다고 하신단다.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잃어 가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지식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해결책을 찾느라 전전긍긍했을까? 그러도 애지중지하던 손녀도 못 알아보고 친정 큰 조카에게도 "넌 누구냐"고 묻는가 하면 부모님과 남편 성함도 모르시니 가슴이 타들어 가고 애간장이 녹아 내렸으리라.

네 남매가 근무하는 병원 5층에서 엄마가 소일하시는데 시시때때로 3층으로 내려와 환자들에게 영통한

말과 시비로 말썽을 부리면 정말 난처하고 대책이 서지 않았으리라. 요양 보호사를 채용해도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버티지 못하고 가버려서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면회도 못 하고 영상 통화로 코에 호스를 끼고 기저귀를 찬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속울음을 삼키곤 한다.

어쩌다가 반듯하고 가슴 따뜻한 우리 언니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없다. 입원 전에도 체중이 12kg 이상 빠졌는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하여 까칠하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한번씩 정신이 돌아오면 자식들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신다니 금쪽같은 자식들이 하를 같은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좌책감에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하듯이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곧바로 병원에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좀 더 덜 힘들실 텐데 하는 회한이 자꾸만 남는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은 병원 방문은 물론 면회나 화상 통화에도 적극 참여해 엄마에 대한 정보를 얻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듯이 요즘 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어 본다.

社說

코로나에 '기부 한파' 취약계층에 온정을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겨울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사회적 약자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탓에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온정도 예전만 못하다니 걱정이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펼쳐지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희망 나눔 캠페인만 봐도 그렇다. 광주지회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의 55억200만 원보다 23.5%나 줄여든 42억1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남지회도 지난해 98억 6100만 원에서 올해는 79억 원으로 19.5% 낮춰 잡았다. 목표액 하향 조정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 들어 코로나19로 개인과 기업 모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목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20일 불을 밝힌던 '사랑의 온도탑'도 12월 1일로 예년보다 다소 늦췄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호남 지역 소외 계층에 연탄을 공급하고 있는 전주연탄은행에 현재까지 기부된 연탄은 1만 5000장으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개인과 법인 등 각계에서 기부한 연탄은 5만 장가량인데, 이는 지역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최소 물량이다. 올해는 기부 문의마저 폭 줄어 이런 추세라면 최소 물량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부 한파'가 계속될 경우 코로나19로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사회 안전망 약화로 이어져 약자들을 베풀어 내몰게 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찬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어떻게 나아 할지 걱정하는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바이든 시대' 개막 정부 꼼꼼히 대비해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우편투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제기 등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승리를 선언하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가 대표적이다.

대외 전략에서도 트럼프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한 바도 있다. 비핵화 정책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왔다.

36년간 연방 상원의원(6선)을 역임한 바이든은 12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까지 지냈다. 외교에 정통한 정치인으로서 동맹 체제와 다자 조약 질서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바이든이 동맹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해도 결코 미국의 이익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중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경 자세는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보다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당선인 및 민주당 인사들과 네트워킹이 구축이 중요하다. 어제 미국으로 떠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서 달 이내에 바이든 측과 교류망을 탄탄하게 구축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위해 꼼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나브로 가을이 깊어 가고 있다. 오색의 단풍은 어느새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수줍게 피어 있던 가을꽃도 하나둘씩 지고 있다. 계절이 경계를 넘어가는 사이,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 바로 시인 이형기(1933-2005)의 '낙화' (落花)다. 우리 삶의 만남과 헤어짐을 꽃이 지는 모습에 빗댄 절정이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얼한
'낙화' (落花)

한 낙화.../ 갈매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정춘은 꽃답게 죽는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 법화경에 나오는데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는 지극히 순리적인 뜻을 담은 고사성어다. 그러나 들고 날 자리, 특히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판단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미련 때문일 수도 혹은 애착이 나 집착 때문일 수도 있다. 순간의 착오에 의해 실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검표 요구와 소송 진행세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는 그동안 혐오와 차별, 막말 발언으로 '미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적잖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갈매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또는 떠남의 대상이 되는 운명을 안고 있다. 꽃이 피는

절정의 때가 있으면 언제는 낙화의 순간과도 마주해야 하는 게 우리네 삶이다. 그러므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들은 정상에 있을 때 겸허하다. 그러나 손리를 잊은 채 권력과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낙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조지훈 시인의 또 다른 시 '낙화' (落花)가 떠오른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타하라... 촉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박성진 문화부 부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